

## 신학적 명찰에 근거해야 할 교회 구조의 갱신

설세 없이 변천해 가는 한국 사회에 있어서 교회가 어떻게 하면 참 선교의 과제를 감당해 갈 수가 있을 것인가 하는 물음은 절박하고 회피할 수 없는 것으로 우리에게 집중되어 있다. 이차 대전 후 식민지의 질곡에서 벗어난 신흥국 중의 한 나라로서 전쟁과 혁명이라는 역사적인 시련을 겪어온 한국 사회는 <어른이 되어가는 세상>의 역사적 흐름 속에 휘몰려 들어가고 있다. 이러한 변천을 한낱 우연한 사건이나 국제 정치의 여파로만 생각지 않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로 받아 들이면서 이 시대의 정조에 대하여 예민하게 응답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종래의 선교 방법에 대하여 가차 없는 자기 검토와 비판을 게을리 할 수 없게 된다.

최근 이러한 움직임이 우리 교계에서도 신중히 다루어지고 있음은 참으로 고무적인 현상이라고 할 것이다. 그러나 여기에서 한 가지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교회 구조나 목회 선교의 갱신의 성서적인 이해를 목사와 평신도를 대립시키는 데서 찾으려는 태도를 삼가야 하겠다는 것이다. 목사와 평신도의 구별과 또 최근 갑자기 대두되는 평신도 운동도 목사직에 대립되는 것으로서가 아니라 상호 보충을 하는 데서 그 의의를 찾아야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목회와 교회 구조 문제가 결코 목사와 평신도라는 이차적인 문제보다도 교회라는 일차적인 견지에서 다루어져야 할 것이다.

현대에 있어서 교회의 기능과 구조 문제를 다룰 때에 먼저 생각

해야 할 점은 개체 교회에 있어서의 목회의 협동적(Corporate) 개념을 밝히는 것이다. 우리가 에큐메니칼 운동에 대해서 말하기에 앞서 목회와 교회 구조의 협동적인 개념을 분명히 파악해야만 할 것이다.

다음으로 개체 교회는 “자기를 비워”(빌2:7) 이웃과 공동체에 대하여 개방적이어야 할 것이다. 개방적인 교회가 된다는 것은 이웃과의 연대성에서 섬기는 교회가 된다는 뜻에서 하는 말이다. 개방적이라는 것이 결코 속이 텅 빈 곳, 서낭당처럼 잠신이 마구 출입할 수 있는 곳이 되어야 한다는 뜻이 아니다. 이웃에 대한 섬김을 통해서 참된 기쁨을 아는 교회, 삶의 전체에 대해서 <살림>을 부르짖을 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교회가 메시아의 종의 이미지를 회복할 때에 비로소 하나님은 <교회>의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의 하나님이심을 깨닫게 된다. 그러므로 교회가 한국 사회에서 소외되지 않고 이 사회 안에서 한 알의 밀 구실을 하려면 사회의 변천 현상에 예민하여야 할 것이다. 한국의 크리스천이 점차로 중류 계급으로 변하게 되어서 경제적으로 <가지지 않은 자>의 자리에서 <가진 자>의 자리에 옮겨갈 때 여기에 따르는 윤리 문제를 교회는 어떻게 다룰 것인가? 사회 계층의 변동이 심한 현재의 한국에서 종래와 같이 <가난한 자>에게만 해당하는 복음을 전할 것인가? 이와 반대로 교회가 중산 계급의 윤리 의식에 무턱대고 긍정하는 태도를 취하여 교회가 일종의 <부르조아>윤리에 해소되고 말 것인가? 이러한 사회적 현상과 여기에 수반되는 윤리 문제가 한국 교회의 목회와 구조 문제에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말할 수 있을까?

개체 교회의 구조 문제는 한낱 인스티튜션에 관련된 문제일 뿐

아니라 그 교회가 처해 있는 지역 공동체 내의 에토스에 대한 깊은 반성과 관련이 있다. 또한 이러한 윤리적인 반성은 실제적인 문제 이기에 앞서 신학적인 성찰의 문제인 것이다. 이러한 신학적인 반성과 검토 없이는 우리 교회와 회중의 구조 문제는 편의상 좌우되어질 수 있는 것이 되고 말 것이다.

한국 교회는 지금 전에 없던 큰 시련에 당면하고 있다. 책임있는 목회자라면 도저히 외면할 수 없는 시련인 것이다. 미래의 아시아의 성패는 새로 형성되는 중산 계급에게 정말 윤리적인 바탕을 마련해 줄 수 있는가 하는 데 좌우될 것이다. 만일 교회가 이러한 시련에서부터 후퇴하거나 중산 계급에게 윤리적인 <에너지>를 주는데 실패하는 경우에 교회는 완전히 이 사회에서 소외되고 마는 결과가 될 것이다. 이처럼 개체 교회의 구조 문제는 현실에 부딪치는 역사적인 도전에 대한 신학적인 명찰에 그 근거를 두어야 할 것이다.